

개선 '97 : 화학산업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한국 석유화학의 몰가치화

94년 봄 세계 석유화학산업이 2년반동안 해매던 불황의 질곡을 헤집고 기지개를 켜던 때가 생각난다.

당시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석유화학 시장의 급반전은 3년 가까이 계속된 미국경기의 호조, 이에 편승한 세계경기의 상승세, 그리고 동남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기초소재 수요급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으나, 보다 큰 요인은 미국 및 유럽 석유화학 플랜트의 크고 작은 사고 발생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94년 폭등에 가까웠던 가격상승세도 갑자기 수급이 타이트해졌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수요가 증가하는 와중에 플랜트 사고가 잇따랐고, 여기에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수급조절이 상승작용을 했으며, 후발 개도국들의 무지에서 오는 사재기가 수급타이트를 더욱 부채질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만약, 94년 봄에 플랜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한국 등의 수급조절이 없었거나, 또는 개도국들의 사재기 열풍이 불지 않았으면 당시의 가격폭등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3가지 요인 중 한가지만 일어나지 않았어도 호황국면까지는 이어지지 아니하였을런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허나 한국사람도 인간(?)이기에 「이웃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했고, 카르텔이라는 절묘한 타이밍이 조화(?)를 이루어 부채가 1조원을 넘어 패망 직전에 다다른 한국 석유화학 산업을 위기에서 구해주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요행수가 묘수로 돌변하는 요지경의 국면이었다.

그런데 3년이 조금 지나간 지금, 또다시 그러한 요행수를 바라는 어리석디 어리석은 「단편적 사고」가 한국 석유화학산업계에 팽배해지고 있는 모양이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결과물을 얻기 보다는 남의 불행을 즐기는 「이중 인격자」의 면모를 과시하면서 이번에도 가격폭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평하면 좀 심한 표현일까?

Shell의 미국 텍사스주 Deer Park 플랜트에서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하고 화재로 이어진 것은 6월 22일이고, 곧바로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아직까지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NCC를 비롯한 대규모 플랜트의 가동이 중단됨으로써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산능력을 보아도 에틸렌 95만톤, 프로필렌 40만톤, 부타디엔 25만톤, 벤젠 70만톤 등으로 나타났고 일부 전문가(?)들은 복구에 6~12개월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 석유화학 수출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성급한 예상까지 제기됐다. 94년에도 Shell을 비롯 Exxon, EniChem 등 대형 플랜트에서의 연이은 폭발사고로 석유화학 경기가 초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수요가 촉발될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석유화학산업을 비롯기라도 하듯 수급타이트나 가격폭등 조짐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94년 벌어졌던 연이은 플랜트 사고도 기대하기 어렵고, 수급조절은 일상화되어 있어 더 이상 약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이며, 수급조절에 춤을 추었던 동남아의 수요자들도 이제는 자급율이 70~80%에 이르러 사재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중국은 정부의 통제하에 가수요는 고사하고 실수요조차 수입이 힘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왜 그러할까? 3년사이에 무엇이 그리 변했길래 요지부동인가 의문이 꼬리를 물 것이다.

하지만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현실이다. 미국의 100만톤 플랜트 하나쯤 터진다고 국제시황이 급작스럽게 상승할 국면이 아님은 물론이다. 8000만톤대를 오르내리는 생산능력이 그렇고, 중국을 제외하면 자급도 80% 이하의 석유화학 후진국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으며, 석유화학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부에서 실제 수급보다는 심리적 현상이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도 전혀 「아니올시다」라고 보아 무방하다. 한국과 일본의 얕은 수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것을 부인할 관계자는 없으리라 본다.

제 궤에 제가 넘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에틸렌 생산능력 400만톤은 「남의 불행」을 즐기는 수준이 아님은 물론이고, 서로를 걱정하면서 시세
급등을 막고 수급선간의 조화에 노력해야 하는 또다른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화학저널 1997/7/7>